

정읍시 폭염대응 3개반 전담팀 가동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 운영
스마트 그늘막 5개소 추가 설치
주요 버스승강장 대형 얼음 비치
가축 피해 줄이기 축사 시설 점검

“주민도 동물도 여름을 시원하고 활기차게~”
정읍시가 폭염에 대비해 시민과 가축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는 종합대책을 내놔다.
정읍시는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한 오는 9월30일까지 ‘폭염대응종합대책’을 운영하고 도시안전국이 총괄해 상황관리반과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반 등 16명 3개 반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가동한다.

시는 우선 보행자가 많은사거리 등 시내 곳곳에 스마트 그늘막(온도 15도 이상, 풍속 초속 7m 이하 가동) 5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37개소의 그늘막을 운영한다.

주민센터와 경로당, 금융기관 등 냉방시설이 구축된 실내 무더위쉼터 344개소도 지정해 운영하며 무더위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냉방기기 점검과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및 소독제 구비 등도 완료했다.

폭염 특보 발효 등 위험지수가 높아질 경우를 대비해서는 주요 버스승강장에 얼음을 비치하고 온열질환자 예방을 위해 7개 거점 주민센터에 양심양산대여소를 설치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읍시는 무더위를 피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약자와 학생들의 이용객이 많은 버스 승강장 8개소와 야외 쉼터에 대형 얼음을 비치했다. <정읍시 제공>

서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미리 축사 환기장치와 냉방 시설 등 점검을 당부했다.

한우·젖소 축사 관리는 지붕에 물을 뿌려주고 운동장에 그늘막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

또 축사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송풍 팬을 가동하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한다.

더위에 약한 돼지는 돈사에 송풍기와 안개 분무장치를 설치하고, 지붕에 물을 뿌려주거나 단열재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 또 사료는 변질되지 않

도록 1주일분 정도로 구입하는 것이 좋고, 매일 사료를 청소해줘야 한다.

가금류는 몸 전체가 깃털로 쌓여있고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므로 축사 등에 스티로폼 등을 부착해 온도 상승을 방지해야 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축종별 가축 관리요령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에서 농장 주변 환경개선과 스트레스 발생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과밀 사육 금지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순창군 공무원 전화·방문 응대 서비스 우수

친절도 조사 90.6점 받아

순창군 공무원들의 전화·방문 응대 서비스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창군은 지난 4월9일부터 5월24일까지 32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친절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종합점수 90.6점을 평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객관성 담보 차원에서 외부 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에 의뢰해 진행됐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부서는 생명농업과로 94.8점을 얻었다. 2위와 3위는 미생물산업사업소(94.3점)와 행정과(93.6점)가 차지했다.

전화 응대 서비스 평가는 맞이, 응대, 마무리 단계와 전반적 만족도 등 총 4개 분야 11개 세부항목

으로 평가했다. 평균 점수는 90.1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 조사에서는 경청태도가 99.5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 응대와 설명태도는 각각 99.3점, 99.2점을 받았다. 전화 수신인 신속성 및 인사태도 항목 역시 각각 96.9점, 90.3점을 얻었다.

방문서비스 조사는 총 12개 세부항목을 평가했고, 평균 점수는 91.1점으로 조사됐다. 상담 자세와 환경 및 직원응대 항목은 만점(100점)으로 평가됐다. 이 밖에 말의 속도 98.8점, 경청태도 97.5점, 표정 94.4점, 종결인사 93.8점 순으로 집계됐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해 직원들의 친절도 수준을 더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순창군의 이미지가 제고와 군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고창군은 지난 16일 지역 예술인들과 ‘군립미술관 건립 추진 간담회’를 갖고, 정식 미술관 건립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군립미술관 건립 여론 수렴 간담회

고창군이 지역 문화예술 부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명품 ‘군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지역 예술인들과 ‘군립미술관 건립 추진 간담회’를 갖고, 정식 미술관 건립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창군 군립미술관 건립은 지역 예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이에 고창군은 예향의 자존심을 세우고, 문제부에서 요구하는 등록미술관으로서의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군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이 자리에서 박미애 한국미협 고창 지부장은 “고창에 좋은 작가들은 매우 많은데 이들을 펴 실이 없다”며 “제대로 된 미술관이 하루빨리 마련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전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테종 고창군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간담회로 군립미술관 건립 사업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향후 고창미술사 연구 포럼, 미술관 주제를 확립하는 미술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군산시 인구 9개월만에 증가세 전환...산업구조 개편 성과

6월말, 전달비해 44명 늘어

군산시가 재생에너지와 군산형일자리를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에 성과를 내면서 인구 추이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6월말 기준 군산시 인구는 26만6389명으로 전달에 대비 44명이 늘었다.

이번 인구는 소폭으로 증가했지만,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에 지역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드는 상

황을 고려하면 고용·산업위기지역인 군산의 인구증가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증가 원인을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미래 산업으로 개편한 성과로 보고 있다.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클러스터가 조성되고 국내 최초의 스마트그린산단이 지정되면서 기업들 입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군산형일자리의 일환으로 산업단지에 전기차 생산단지가 조성되면서 젊은층 인구 유입을 견

인했다고 분석했다. 이길용 군산시 기획예산과장은 “경기침체로 인구가 감소했던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미래성장을 견인할 기업이 유치되면서 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현재의 기회를 잘 활용해 다양한 정책 발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익산시 지역화폐 ‘다리로움’ 지원 한도 확대

익산시가 지역화폐 ‘다리로움’ 지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익산시는 다리로움의 개인별 인센티브 구매한도와 소비촉진지원금 지원한도를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간 지원 한도도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증액된다.

기존에는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다리로움 충전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10%와 결제 후 받게 되는

소비촉진지원금 10% 등 총 20%의 지원 혜택이 제공됐다.

시의 지원 확대로 다리로움 카드를 사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20만원 혜택과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다리로움 사용결제액 상위 30곳은 충전금 사용이 가능하지만 소비촉진지원금 적립은 제외된다.

해당 업체는 시 홈페이지, 익산다리로움 앱(착한페이) 팝업창, 행정복지센터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

시는 다리로움 발행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리로움은 지난 6월 말 기준 가입자 수 10만명을 돌파했으며 총 누적 발행금액은 3157억원을 넘어서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다리로움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남원시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박차

남원시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의료 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진행돼 오고 있다.

올해는 농촌지역 140개 마을을 대상으로 건강관리기구를 보급하고 있다.

보급되는 건강관리기구는 안마의자, 자동전자혈압계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5억490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민 건강 관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에서 오랜 농사일로 지친 어르신들이 사실상 경제적 이유나 의료기관의 접근성 문제로 건강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농업인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무 ★
첨가료
염색료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